

#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평가구조에 대한 연구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 Evaluating Street Improvement Projects: the Design Seoul Street Pilot Cases

○남 궁 지 희\*      박 소 현\*\*  
Namgung, Ji-Hee    Park, So-Hyun

### Abstract

This study aims 1) to examine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of 'Design Seoul Street' Project, promoted by City of Seoul since 2007, and 2) to build foundation for a practical evaluation system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Among the first 10 pilot cases, Gangnam-daero, Gwanak-ro, and Neungdong-ro were selected and taken under qualita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scope of 3 perspectives, including Physical-objective, Functional-perceived, and Social-communicative. Because of differences in street characteristics, surrounding conditions and social expectations, proclaimed objectives and contents of projects also varied among 3 cases. As a result, a step-by-step evaluation structure is suggested, accommodating such variations with sophisticated evaluation criteria.

키워드 : 가로환경 평가, 공공사업 평가, 가로환경 개선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시범사업

Keywords : Street Evaluation, Project Evaluation, Street Improvement Project, Design Seoul Street Pilot Cases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의 대표적 공공공간이자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가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가로환경 개선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와 방향 및 내용을 점검해보는 한편, 향후 가로환경 개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평가가 고려해야 할 전체들을 정리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의 범위 및 항목을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디자인서울거리 1차 시범사업의 10개 대상지 중 강남구의 강남대로, 관악구의 관악로, 광진구의 능동로 세 곳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작성된 매뉴얼, 계획안, 보고서 등 관련 정책 자료와 현장 관찰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전체와 각 대상지의 계획 목표와 사업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각 대상지의 특성과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및 보완사항과 더불어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일반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가로환경의 질

가로환경의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로환경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가로환경에 대한 정의는 주체에 따라, 또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 관점의 다양성만큼이나 같은 가로환경에 대해서도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다.

Daniel(2001)은 경관의 질을 정의하는 방식이 크게 물리적 환경 그 자체의 속성에 근거한 전문가 중심의 접근과 개별 이용자의 경험과 판단을 중시하는 인지적 접근으로 대별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이 두 접근을 통합 또는 병행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관이 단지 물리적 환경과 인간 사이의 일차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련의 사회, 문화적 구조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소통에 의해 공통의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좋은 가로환경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에도 이 체계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 중심의 물리-객관적 측면과 행태, 심리 중심의 이용-인지적 측면, 공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도시설계·계획학 박사

등의 합의를 중시하는 사회-과정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가로환경 평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 가로환경 평가 연구의 흐름

가로환경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 경향은 크게 물리적, 객관적 측면을 중시하는 평가(김태호, 2009; 박소현 외, 2008; 박경환 외, 2007; 최강립, 2008;)와 이용자의 행태와 심리 중심의 평가(강준모 외, 2004; 강혜원 외, 2009; 김지혜 외, 2009; 김민정 외, 2008; 최열 외, 2006; 장준호 외, 2005; 한명호, 2005)로 나뉘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측면을 병행한 경우(김지희 외, 2008; 신은경 외, 2008; 조준범, 2007)나, 이용자의 행태나 만족도,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연구도 많다.(송대호 외, 2006; 양재혁 외, 2009; 이경환, 2008; 이진숙 외, 2009; 조윤희 외, 2009; 조홍정 외, 2004; 최임주, 2003; 홍성조 외, 2008) 이 밖에 가로이미지의 사회적 형성 과정(오지훈 외, 2008)이나, 가로공간 설계 과정의 특성(손장원, 2001), 가치측정을 통한 사업 목표 설정 방안(정금호, 2003) 등 사회-과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보행, 경관 등 세분화된 연구 분야별로 보다 정교한 가설이나 방법론의 수립과 검증에 대해 평가 관점과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하여 사업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 개선과 그것이 이용자에게 주는 효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될 경우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실상 이들 모두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평가 틀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 어떤 쟁점들이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 2.3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전-후 이미지 비교나 만족도 조사, 물리적, 정량적 실적 위주의 보고에 그친다면, 단지 사업의 당위를 입증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평가가 피드백 되어 사업의 내용과 결과물을 보완하는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쟁점들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에는 사회나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대되는 가치와 특성에서부터, 각 사업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과 목표, 개별 대상지의 특성과 조건,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다층적인 평가기준이 중첩되어 작용한다.<sup>1)</sup>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하면서도 각 사례의 개별성과 특수성,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의

1) 강현구 외(2009)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전체 차원의 기본계획부터 구역과 대상지 차원의 사업계획, 시설물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계에서 추구되는 가치들이 일련의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가치체계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치체계라는 용어를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차이를 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가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사업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평가의 틀을 구성하여 개별 대상지에 적용해봄으로써, 다층적인 평가기준들 사이의 간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분석 대상 사례의 개요

### 3.1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2007년부터 서울시는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수도 서울’의 비전 아래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 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일련의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2007년 9월 1차 시범사업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08년 3월 2차 20개소와 2009년 5월 3차 20개소까지, 5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총 1973억 원 이상의 공공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1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사업 목표	사업 추진 방향
물리 객관적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거리	- 기초 보행환경 정비
		- 가로변 주요 장소 개선 및 연계 - 저밀도 고효율의 시설물 통합 - 양보다 질 중심의 광고물 정비
이용 인지적	건고,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장소 서울 고유의 도시이미지 형성	- 보행, 휴식에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 - 거리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컨셉 제시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총괄기획자 선정 -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적용, 디자인서울총괄 본부의 검토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사회 과정적	도시디자인 실행 체계 통합 더불어 디자인하는 거리	- 시민-전문가-행정-파트너십 참여형, 체험형 디자인 -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업 목표와 내용을 3 가지 측면에 맞추어 재구성해 보면(표 1), 보도, 가로시설물, 광고물의 통합디자인을 통한 물리적, 시각적 개선 뿐 아니라 지속적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적, 체계적, 협력적 추진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어, 막연하게 건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를 표방하던 이전 가로환경 개선사업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 없이, 일부 1차 시범사업은 채 완료되기도 전에 3차 대상지까지 선정되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3.2 대상지 개요

표 2는 분석 대상인 디자인서울거리 1차 시범사업 대상지 세 곳의 특성과 사업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중심상업가로인 강남대로는 강남의 대표 상권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이 부재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공간디자인과 동등한 비중으로 문화 컨텐츠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관악로는 다양한 기능과 동선, 이용자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구체적 사업전략은 결여되어 있다. 상업시설 위주의 다른 가로에 비해 가로변에 주로 공공시설들이 면한 능동로는 오픈스페이스 등 잠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영역의 연계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표 2 대상지 특성 및 사업 개요

	강남대로	관악로	능동로
사업명	Digital Media Street (U-Street)	참된 걷기와 기본 좋은 머뭇	어린이거리
대상 구간	강남역 - 교보타워사거리 760m 구간 (폭 50m)	서울대입구역 - 건영아파트 500m 구간 (폭 40m)	어린이대공원사거리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550m 구간 (폭 35m)
사업비	9,464백만원 시비 4,060/구비 5,404	4,251백만원 시비 3,328/구비 923	4,685백만원 시비 4,000/구비 685
특성	중심상업가로	근린상업가로, 환승거점	여가 및 통학로
주 업종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근린상업 및 음식점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인근 주요시설	삼성타운, 교보타워 등 업무시설	관악산, 서울대, 관악구청	어린이회관, 어린이대공원, 세종대,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이용자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소비자	인근 주민, 대학생, 등산객	가족단위 관광객, 대학생
문제점/현황	-보행환경: 가로시설물/노점 난립, 보도경사/단차, 보행 공간부족, 대기오염, 소음 -가로경관: 불법광고물과 낙후된 건축물 -침체된 지역상권 -거리문화 부재	-주/근생/업무/교통/여가 등 기능 혼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복합쇼핑몰 등 보행유발시설 집중으로 혼잡 -노후건축물, 광고물, 노점상 난립으로 열악한 가로경관	-통합아이덴티티 부족 -랜드마크/공간의 상징성 취약, 매력 요소 부재 -오피스페이스 연계 X -보행 환경 미흡 -시설물 통합성 부족 -주변 환경과 부조화
주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디자인전략</li> <li>보행자 우선 배려: 물리적, 심리적 보행장애인 제거</li> <li>기능복합/최소장차: 불필요한 기능 통합하여 공간 개선</li> <li>문화컨텐츠전략</li> <li>소통의 상호작용: 이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완성되는 미디어스페이스</li> <li>운영 유지 발전의 지속성: 디지털 미디어 문화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악구의 정체성이 담긴 특색 있는 거리</li> <li>철재와 통합, 비율으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전선 지중화, 보도포장, 노점상 정비, 식재 조정, 간판 정비</li> <li>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 만들기</li> <li>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병행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이미지 정립: 어린이 거리로 특화, 놀이와 학습의 공간 창출</li> <li>공공-민간 영역 연계: 잠재된 공공공간을 쌍지형 문화공간으로 개발</li> <li>보행권 확보: 보행을 고려한 시설물+경관개선</li> <li>가로경관요소에 통합 디자인 아이덴티티 적용</li> <li>가시성 높고 심미적인 통합 사인시스템 구축</li> <li>수목과 수경시설 등 친환경적 공간체계 확립</li> </ul>

4. 사례 분석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평가방향을 구성하였다(표 3). 물리-객관적 측면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 내역을 비교, 검토하고, 이용-인지적 측면에서는 실제 공간 활용의 관점에서 대상지의 개선 여부를 진단하는 한편, 가로의 특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과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과정적 측면에서는 통합된 도시디자인 실행 체계가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계획안에 가해진 변화 내용을 비교해 보고, 실제 사업에서 참여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한다.

4.1 물리-객관적 측면

세 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포장재를 교체하여 보도의 평탄성이 개선되고, 유도블록, 맨홀 등 시설물과의 접합부도 깔끔하게 정비되었다. 각종 시설물을 통합하고,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판 및 노점을 정비하였으며, 전신주, 분전함,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등 유관기관의 시설물 또한 협의를 통해 철거, 지중화하거나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가로변 상점의 옥외광고물 역시 주요 정비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로변 필지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대상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강남대로는 보도 패턴을 건축선 후퇴부, 주차장 출입구 등 민간 필지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행자 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을 도모한 반면, 관악로는 가로변 필지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능동로는 기존 담장을 허물어 보도폭을 넓히고, 보도 경계부를 곡선

표 3 사업 평가 방향

평가항목	평가내용
보도	
공공공간	관련 사업 추진 내역
공공시설물	
간판	
보행 및 외부활동	보도/공공공간의 활용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도입 여부
가로 이미지	특화 디자인 컨셉의 적절성
디자인 결정과정	계획안의 변화
참여와 협력	참여, 협력의 정도와 효과

형 화단으로 정비하고, 공공시설 내의 오픈스페이스를 개방하여 보도와 연계된 광장, 산책로,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시설물 및 간판 개선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강남대로와 관악로는 시설물과 간판의 통합, 철거를 통한 수량 감축을 주요 성과로 정의하고, 가로수 간격 조정, 수량 감축 등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혼잡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능동로는 공간 확보보다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새로 조성되는 공간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일부 시설물을 존치하거나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하기도 했으며, 가로변 식재 역시 크게 늘었다. 계획안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2차 사업 및 광진구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제한한 것으로 대상지 내에는 정비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의 개선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강남대로는 각각부의 교통성을 통합하여 광장을 조성하였고, 관악로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통행량 감소 구간에 자작나무 숲길을 조성하였다. 이에 능동로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세종대 담장 개방부와 정문, 어린이회관 옹벽을 이용, 쉼터, 광장, 산책로, 화단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셋 중 장소적 접근이 가장 두드러진다.

4.2 이용-인지적 측면

보행 및 외부활동과 특화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강남대로는 시설물 통합으로 보행공간이 대폭 확장되었으나, 그늘, 벤치, 노점 등 가로변 행위의 다양성을 유발하는 요소들<sup>2)</sup>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지역 정보검색,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폴<sup>3)</sup>이라는 강력한 특화요소를 도입하여, 이를 거점으로 새로운 거리 문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악로는 노점의 규격만 통일하여 영업을 허용했으므로 유효보도폭에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 등 여러 동선이 교차하는 주요 지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혼잡한 구간에는 앉거나 쉴 곳이 전혀 없고, 유일하게 조성된 쉼터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한편, '통합적 Green'이라는 컨셉과, '나무'에서 온 지그재그의 형상을 가로등과 바닥 패턴, 경계석 등에 적용하였는데, 관악산에 이르는 녹색길을 조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자연친화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능동로는 보행환경도 개선되었지만, 무엇보다 기존에 배타적 시설이었던 어린이대공원과 세종대가 시설 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학교나 공원 방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눈의 띄는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시설과 이

2) Whyte(1980)는 사람들이 잘 모이는 장소의 특성으로 이동 가능한 의자, 앉을 곳, 햇빛, 물, 녹지, 불거리, 노점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3) 미디어폴을 구현하기 위해 타 대상지의 2배에 가까운 과도한 사업비가 지출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이므로 미디어폴의 효용이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앞으로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운영상의 부담을 지적할 필요는 있다.

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4.3 사회-과정적 측면

능동로의 경우, 초기 계획안에 ‘어린이 거리’임을 강조하는 독특하게 디자인된 시설물들이 있었으나 제안에만 그쳤으며, 광장의 바닥에 미디어폴처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플라자를 조성한다는 안 역시 예산과 기술적인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심의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은 주로 제한된 예산과 시공, 유지관리 상의 문제 등 현실적,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 대상지의 문제와 목표 설정의 적절성이나 디자인 방향 등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지적이나 보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능동로의 경우,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이 사업성파에 크게 기여했지만 협의 대상이 대부분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에 비해 민간에 대한 설득의 필요성과 참여의 여지가 적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노점, 간판 등 협의해야 할 대상이 많았던 강남대로와 관악로에서는 비록 관 주도의 설득이었지만 공무원과 주민이 소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 이 경험을 확장해 보다 실질적, 자발적인 참여와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 간 네트워크까지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4.4 소결 및 시사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통합과 절제의 방향과 각 가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자치구의 특화 전략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세 대상지가 보여주는 접근 방식은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 강남대로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절제하는 대신 미디어폴이라는 독자적인 시설물에 크게 의존한다. 강남대로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앞으로 미디어폴이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관악로는 통일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 통합과 특화 모두를 해결하려 했으나, 강하게 부각된 조형적 특징이 다양한 이용자나 실제 개별 공간에 대한 고려와 조화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걸도는 한계를 보였다. 능동로는 개별 장소의 개선에 주력하여 가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인위적인 디자인 요소가 순화되면서, 가로 자체의 형상보다 이용자와 장소가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가로 정체성과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상지 혹은 설계안 공모 과정에서 무난한 것보다 튀는 디자인이 조장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흐르거나 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결국 심의를 비롯한 평가 과정이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사업 차원의 공통 사항과 별도로, 대상지마다 다른 조건과 현안을 감안하여 대상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평가 항목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물리-객관적, 이용-인지적, 사회-과정적 3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각 단계별

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통사항과 대상지별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가로환경 개선사업 평가의 단계별 고려사항

	공통 사항	대상지별 고려사항
목표 설정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목표간 위계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었는가?	-대상지만의 문제점과 특성,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이를 목표에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계획 수립	-계획안이 사업 취지와 목표를 잘 뒷받침하는가?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는가?	-대상지에 적합한 특화요소가 설정되었는가? -특화요소가 전체 계획안과 조화를 이루는가? -개별 장소들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되었는가?
사업 추진	-의사결정과정에 관련 주체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	-지역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였는가? -시안별로 우선 고려해야 할 주체들이 있는가?
사업 완료	-각 목표들이 달성되었는가? -건가에 편안하고 쾌적한가? -가로경관이 조화를 이루는가?	-대상지의 장소성이 전체적으로 잘 구현되었는가? -개별 장소들이 각각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잘 활용되었는가?
유지 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체계가 갖추어졌는가?	-특화요소별, 장소별로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정책 현장에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관점의 차이를 감안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평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예비 연구이다. 먼저 평가를 둘러싼 관점들과 평가의 범위를 고찰하고, 현재 후속 사업이 진행 중인 디자인서울거리 시범사업의 3개 대상지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향후 사업 및 평가에서 보완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사업 단계별, 대상지별 차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는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 내용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각 부분의 평가방법론을 보완하여 통합적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화, 구체화해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강남구, 디자인서울거리 강남대로 U-Street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2008
2. 강현구·유정호·김창덕·손보식, 「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체계 관리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권, 4호, pp.139-150, 2009
3.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1단계)실시설계보고서, 2008
4. 광진구, 「광진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서」, 2008
5. 김지희·이명훈, 「지각 인지 특성을 고려한 가로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 건국대 주변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3권, 3호, pp.21-36, 2008
6. 박현찬,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7.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2차) 추진 매뉴얼, 2008
8. Daniel, T. C., 「Whither Scenic Beauty? Visual Landscape Quality Assessment in the 21st Centur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54권, pp.267-281, 2001
9. Moudon, A. V., 『Public streets for public us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1
10. Whyte, W. H.,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Conservation Foundation, Washington, D.C., 1980